

커지는 기후위기 경고음...현실 못 따라가는 환경교육

광주기후진흥원 환경교육실태조사
응답자 절반 “기후위기는 이미 현실”
20대 ‘무력감’·50대 ‘책임감’ 느껴
시민들 대상 구체적 실천교육 필요

광주시민들이 인식하는 기후위기 심각성에 비해 실제 교육 경험은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 광주 환경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4차 광주시 환경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광주 시민 70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거친 결과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399명·56.9%) “기후위기는 이미 현실”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후 위기가 ‘10년 이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응답은 81명(11.6%)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와 관련해 시민들이 갖는 감정은 ‘불안’이 493명(74.2%), ‘미안함’ 309명(44.1%), ‘책임감’ 250명(35.1%)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무력감’ (47.2%)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으며 50대는

‘미안함’ (51.0%)과 ‘책임감’ (41.5%)이, 60대 이상은 ‘불안감’ (77.1%)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기후위기 관련 교육 경험으로의 연결은 크게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 654명(93%)이 환경교육 참여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실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최근 3년간 전혀 없다는 응답은 272명(38.8%)이었다.

교육 참여 대상자 불만족 요인으로는 접근성(27.3%)이 가장 많았으며, 환경교육 방해 요인에서도 시간·정보 부족 등 접근성 항목이 1순위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학업직장 생활가사 활동 등 주어진 일에 시간을 사용하느라’가 31%,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서(잘 몰라서)’가 23.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강사를 대상으로 한 지자체의 환경교육계획 전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환경교육 강사 111명 중 설문에 응한 91명 가운데 ‘제3차 광주광역시 환경교육계획’의 세부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강사는 4명(4.4%)에 불과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은 29명(31.9%), 계획이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다는 응답은 47명(51.6%), 계획을 처음 들었다는 강사는 11명(12.1%)이었다.

환경교육 프로그램 구성도 특정 분야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의 교육 활동 주제는 기후

변화·탄소중립이 54명(59.3%)으로 가장 많았고, 자원순환 35명(38.5%), 생물다양성 19명(20.9%) 순이었다. 자격 보유는 숲해설가가 42명(46.2%)으로 가장 많았다. 기관·단체 조사에서도 숲체험·자원순환·기후·탄소중립 중심의 프로그램 비중이 높았으며, 전체 59개 기관 중 42개(71%)는 환경교육 전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이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본 환경교육 주제는 ‘쓰레기·재활용’이 356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후변화 209명, 에너지 141명, 미세먼저·공기오염 130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필요한 정보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법’이 213명으로 가장 높았다.

조사에서는 고령층의 정보 격차도 확인됐다. 진흥원은 “6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환경문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다”고 분석했으며, 정보 취득 경로 역시 TV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관계자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교육을 넘어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시민대상 환경교육 강화, 환경교육 접근성 제고, 학교 환경교육 강화, 행정·교육청·민간 등 여러 주체간 협력의 필요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함께 만드는 착한 소비 ‘자활장터’가 이어갑니다

자활사업단 대표 상품 판매 호응

지역 자활사업단이 직접 만든 신선식품을 지역민들과 나누는 ‘자활장터’ 행사가 광주시 서구에서 열렸다.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는 2일 광주시 서구 서빛마루시니어센터에서 ‘자활장터’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지역 주민에게 착한 소비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사업단 참여자들이 직접 만든 신선식품과 특색 상품을 선보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터에는 겨울철 건강을 위한 손배죽, 배도라지

즙, 햇개쥬 등 ‘건강&쥬’ 부스와, ‘내친구김’의 전장김·자반, ‘희망이네 국내산두부’의 고소한 두부와 토토리묵·콩비지 카스테라, ‘청춘발산 식빵마을’의 갓 구운 식빵 등 다양한 자활사업단 대표 상품이 판매돼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자활장터는 지역 주민이 합리적 가격에 품질 좋은 지역 생산품을 구입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자활사업단이 서로 연결되고 상생하는 뜻깊은 자리로 평가받았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활사업단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활장터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민경 기자 minky@

영·섬진강 하천·자전거길 ‘환경·안전 관리’ 강화

영산강유역환경청, 하반기 협의회...통합 관리 방안 논의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겨울철 안전대책과 함께 영산강·섬진강을 기후·환경 친화형 하천공간으로 관리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오는 3일 영산강물문화관에서 ‘2025년 하반기 영·섬진강 하천관리 및 자전거길협의회’를 열고 하천환경·자전거길 통합 관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영산강홍수통제소,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 경상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8개 하천 관계기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천시설 유지관리뿐 아니라, 기후변화로 찾아지는 극한강우·한파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하천관리 방향, 하천변 이용객의 이용 행태를 반영한 공간 관리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청은 영산강·섬진강 등 13개 국가하천에 설치한 434지점 1302대의 CCTV 정보를 관계기관과 공유해, 홍수예방은 물론 겨울철 결빙 구간, 상습 침수·결로 구간, 취약한 산책로·자전거길 구간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용객 안전과 하천환경 훼손 최소화에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눈과 결빙으로 인한 하천변 지하도로(언더패스)·산책로의 통행 불편과 미끄럼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설·제빙 자재 사용 시 수질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생태계에 부담을 덜 주는 정비 방식

등을 논의하고, 사고 발생 시 인근 기관의 자재·장비를 공동 활용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하천 자전거길(영산강 133km, 섬진강 149km)은 단순 여가공간을 넘어 친환경 교통수단과 하천경관을 함께 누리는 저탄소 이동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협의회는 자전거길 중주노선의 노후구간 재포장과 차선도색, 표지판·안전시설 정비와 더불어 야생동물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시설 설치, 하천 식생을 훼손하지 않는 정비 기준 등 환경 친화적 관리방안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또 자전거길 운영 및 유지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이용객이 많아 토사 유실·쓰레기 적치가 반복되는 구간, 제방 사면 훼손이 우려되는 구간 등 환경·안전 취약구간을 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하천환경과 자전거길을 함께 보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지속적인 하천환경 및 자전거길 정비를 통해 지역의 문화·관광과 생태환경이 어우러지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겠다”며 “영산강·섬진강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친환경 하천관리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양동시장역에 엘리베이터 설치

7억5000만원 투입 내년 5월 준공

20년 넘게 장애인단체와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광주도시철도 1호선 양동시장역 지상 엘리베이터 설치가 본격화된다.

2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오는 9일 오전 11시께 양동시장역에서 지상 엘리베이터 기공식이 열린다. 광주시는 예산 7억5000만원을 투입해 양동시장역에 지상과 지하 1층을 잇는 승강기를 신설할 계획이다. 준공 예정일은 내년 5월이다. 그동안 양동시장역은 광주 19개 역사 중 유일하게 지상 연결 엘리베이터가 없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그동안 행정절차와 예산의 벽을 넘어야 했고, 여러 차례의 설계 검토와 조정 과정 속에서 사업이 멈추거나 뒤로 밀리는 순간도 적지 않았다”며 “단지 엘리베이터 한대의 설치가 아니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도시의 체계와 철학이 한 단계 더 현실에 가까워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

남구 건강복지 소통창구 ‘대학생 건강 가디언즈’ 인기

광주시 남구 주민들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학생 건강 가디언즈’<사진>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

2일 광주시 남구는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대학생 건강 가디언즈의 SNS 계정이 지난해 팔로워 5000여명에서 현재 1만 7000여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대학생 건강 가디언즈는 관내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해 만든 대학생 건강 홍보단이다. 올해에는 광주대를 비롯해 기독간호대와 전남과학대, 광주여대, 호남대에 재학 중인 학

생 40명이 8개팀으로 나눠 활동 중이다.

이들은 치매·당뇨병과 심뇌혈관질환의 연관성 등 건강 이슈를 다룬 동영상 4편과 금연 및 구강건강과 관련한 카드뉴스 등 282건의 콘텐츠를 공유하면서 주민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다 보니 주민들께서도 신선하게 받아들이면서 더 친근하게 수용하고 있다”면서 “많은 주민이 ‘좋아요’로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www.kwangshin.ac.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